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협상과 대화의 기본, 역지사지

미국 대학의 노사관계대학원에서 단체협상론 강의를 들을 때의 경험이다. 담당 교수는 중간고사에 대신하여 한 기업의 경영실적 자료를 주면서 이를 분석해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경영실태를 노조의 입장에서 자세히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한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라는 과제였다. 우리는 노조 입장에서 경영실적을 분석해 보고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것,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는 것, 노동자들이 열심히 협조적으로 일했다는 것 등 실적을 부각시켜 최대한의 임금 인상 추경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었다.

그러더니 그 교수는 확기말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제 입장을 바꾸어 이번에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 같은 경영자료를 갖고 지난번에 제출한 노조의 요구안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지난번에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노조에 유리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최대한의 임금인상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과제

였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료를 갖고 전혀 다른 논리를 펴라는 것인가? 그러나 시간을 갖고 여러모로 고민해 보니 같은 자료를 갖고도 전혀 상반되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경영실태를 갖고도 '이익이 많이 났으니 임금을 대폭 올려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그래도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에 쓸 재원이 없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심판과 조정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떤 중소기업의 조정사건을 담당할 때의 일이다. 먼저 노조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사장이 그 야말로 악덕 기업주의 표본같이 보였다. 회사 이익이 많이 나도 노조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급 승용차 구입이나 골프, 해외 출장, 관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노조 측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임금인상 재원이 없다고 임금인상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니 요즘도 이런 사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에 사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니 전혀 사정이 달랐다. 사장 입장에서는 회사 영업 활동

을 위해서 고급 승용차나 해외 출장비가 필요하고 접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업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느냐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노사협상이란 다른 어떤 대화에서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요즘에는 각종 교육에서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역할게임이 일반화되어 있다.

2000년대에 노동부가 노사분규로 폐업한 수십 개의 회사를 찾아다니며 노사대표를 직접 인터뷰한 사례가 있다. 이미 망한 회사의 사장과 노조 대표를 어렵게 찾아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모두 후회막급이고 똑같은 상황이 처한다면 다시는 공멸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성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그들이 그때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 부족이었다.

노조는 회사 사장이 어렵다고 했을 때 사장이 항상 하는 엄살인지 알았다는 것이고, 사장은 노조가 회사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노동자 이익만 챙긴다는 생각을

하고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다면 다 터놓고 이야기했다면 왜 협조를 안 했겠느냐"는 얘기다.

동양의 대화 철학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간단한 원리이지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한다. 경청(傾聽)은 몸을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몸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치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듯이 대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다.

대화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작용한다. 보고서는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상사의 입장에서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 논리와 자기 어휘로만 작성하니 그런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역지사지해서 보고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무엇이 궁금한지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런 내용이 빠지고 자기 일방적 생각만 담은 보고서는 이미 낙제점이다. 역지사지는 대화와 협상의 핵심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종교칼럼



하성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시비이해(是非利害)의 원칙

요로운 삶을 기근에 허덕이는 삶과 바꾸는 의인들도 있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남김 없이 헌납하는 이도 있었으며, 사랑하는 부모모형을 뒤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이름 없는 용사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의 나라,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이 판치는 나라로 오인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명쾌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으로 접근한 판단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이될 수밖에 없다.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는 정전(正典) 사리연구의 목적이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써 건설되고 시비이해의 일로써 온전해 가나니...'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세상은 '크고' '작고' '있고' '없는' 현상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일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산(茶山)이 아들 정학연에게 준 편지 중 한 대목이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是非),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利害),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여기에서 꼭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시비이해(是非利害)라는 부분이다. 시비이해는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다'라는 단어의 조합이 아닌, '옳으나' '그르냐'를 우선하고 그 다음 '이롭나' '해롭나'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비이해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롭나' '해롭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순간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일인지? 해로운 일인지?'에 대한 이해타산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뒤에 그른 일로 인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차가운 시선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짐에도 그 이유를 모르고 타인을 욕하고 원망을 한다.

"달콤 삼키고 쓰린 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나에게 이로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나에게 해로우면 권모술수를 통해 멀리

하기에 진정 중요한 부분인 '옳고, 그름'인 시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통의 부재, 정경유착의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져 버린 것은 아닐까?

자주독립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기에, 나의 조국강산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안위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외와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배반 불리고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오늘날도 동분서주하는 이들은 훗날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불나방의 처참한 최후를 알고 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비이해를 잘 이해하고 옳은 일이면 다소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타인도 살고, 나아가 이 사회 이 국가가 바로 서는 일이며 다함께 발전하고 잘 사는 원칙임을 알아야 하겠다. 대대손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정신이 이어졌으면 한다.

기고

꿈과 열정이 가득한 녹색 그라운드를 그리며



박해구 광주 FC 사무처장

임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총 35경기의 대장정이다.

2010년 창단한 광주는 역사적인 K리그 데뷔전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3-2, 퀼레스 코어 승리를 장식하며 시민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광주가 내딛는 첫걸음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3만5000여명의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빛고를 전자들을 응원했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로 시작한 광주는 창단 첫해 역대 시·도민구단 창단 최다 승이라는 새 역사를 기록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꿈과 열정으로 뿔뿔 뚫린 광주는 광주시민들의 8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했다.

2012시즌 '비빔밥 축구'를 선언한 광주는 개막 후 5경기 무패행진을 펼치며 K리그 정상에 우뚝 섰다. 특히 시작 5분과 막판 5분 사이에 극적인 골이 연달아 터지면서 팬들은 드라마틱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광주극장'이라 추켜세웠다.

하지만 두살배기 광주는 너무 어렸던 것일까. 리그 중반부터 선수들의 졸 부상과 경고누적 등이 겹치면서 연패의 늪에 빠졌다. 막강한 공격력은 수비조직력 약화로 빛이 바랬다.

힘겨운 싸움 속에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구단 안팎에서 심각한 잡음도 있었다. 결국 광주는 냉혹한 강등의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다. 팀의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28일,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공허함과 아쉬움 또 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차마 발길을 땄 수 없었다. 광주는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한동안 먹먹한 기분 속에 어려운 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다시 시작했다. 위기는 기회로 찾아왔다.

구단은 2013년을 재도약의 해로 삼았다. 선수단과 프런트가 재정비됐다. 주축 선수

들이 빠져지만 묵묵히 역할을 해왔던 선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알토란같은 선수를 영입하며, 빠른 페이스 축구를 완성했다.

구단주인 강은태 광주시장은 클럽하우스와 전용연습장, 전용구장 건립을 약속했고, 자신감으로 뭉친 선수단은 1부리그 승격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 구단 프런트 역시 단결된 조직력으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모두 풀체만 안 하면 다행이라고 했던 2011년, 시민구단 신생팀 최다승(9승) 기록을 쓰며 K리그에 돌풍을 불러일으켰듯이 145만 광주시민들이 다시 한번 뿔뿔 뚫어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다면 K리그 30년 역사상 첫 승격 팀의 영광은 분명 광주의 몫이 될 것이다.

광주시민들의 새봄맞이가 3월 16일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아예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는 게 다반사라고 한다.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휴식도 없는 노동은 각종 사고나 건강 악화와 직결된다.

회사 근로기준법까지 내세우지 않더라도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도 이런 부분이 소홀히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줘야 한다.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社說

박근혜 정부서도 여전한 호남 인사 출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호남 소외가 계속될 것인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조각에서 호남 출신 인사가 배제되더니, 후속 차관급 인사에서도 수도권·영남권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호남 출대가 여전하자 지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발표된 차관 인사는 5년전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 호남 차별이 더욱 심화됐다는 평가다. 20명의 차관 중 호남 출신은 고작 3명(15%)에 불과했다. 반면 영남과 수도권 출신은 각각 6명(30%)이나 됐다. 이명박 정부 초반 차관인사 때 25명 중 호남 출신이 8명(32%)이나 늘던 데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장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5년전 15명의 장관 중 호남은 2명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17명의 장관 중 호남 출신이 2명으로서 외견상 전 정권과 비슷하다. 하지만, 방한남 노동부장관이 완도 출신 이긴 하나 줄곧 서울에서 지냈고, 진영 복지부장관도 고창이 고향일 뿐 서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둘 다 무리만 호남인 셈이다.

이에 반해 영남권은 5년전 4명에서 7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무총리 인선부터 언론의 하마평에 수없이 오르내렸던 유력 호남인사들의 이름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호남을 찾을 때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 말과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법관인사부터 펼칠 것"이라는 약속에 다소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최근 들어 오히려 실망만 키우고 있다. 또다시 '호남 소외론'이 회자되는 게 지겨울 뿐이다.

국민대통령의 단초는 호남인재의 응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수차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가 호남 출대 등 특정지역 편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식, 향후 이긴 하나 줄곧 서울에서 지냈고, 진영 복지부장관도 고창이 고향일 뿐 서울

한미FTA 1년, 농민들은 더 힘들 뿐이다

오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을 맞았다. FTA 발효 첫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총 585억 달러로 전년보다 4.1% 늘었고, 미국의 직접투자 역시 36억7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농업분야의 피해를 감안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FTA 발효 1년, 농민들이 체감하는 타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 소 값의 경우 2년 전에 비해 54.1%나 급락하고, 돼지 값도 30% 이상 폭락해 축산농가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서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데 있다.

미국산 오리엔트, 포도, 체리 수입도 20~70% 이상 증가하면서 국산 과일 소비를 대체해 과일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향후 14년 후에도 관세와 수입물량이 해지되는 쌀은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전남도의 경우 총 농업소득 감소 규모가 1조 408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현재 협상 중인 한중FTA는 더 가혹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농어업 등 생산 품목이 유사한 전남 지역은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대책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의문이다. FTA 발효 직전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렇다할 대치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을 그렇게 외쳤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유통구조 개선을 촉구했잖는가.

농업은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도 온전할 리가 없다.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일선 기지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교황선출 방식을 흔히 '콘클라베'라고 한다. 콘클라베는 추기경들의 선거로 진행되는데, 처음부터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하지는 않았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교황이 되려면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1059년 교황 니콜라우스 2세는 교회의 자유를 지키지는 여론을 이용해 교황선거를 추기경 주교에 국한시키는 교황선거법을 결정했다. 로마에 거주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선출하던 교황선출 방식을 각국에 산재한 추기경으로 제한하면서 자연스럽게 황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3분의 2의 선출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선거의 지연과 함께 교황의 장기 공석사태를 초래했다. 급기야 교황 클레멘스 4세가 선종한 1268년부터 3년 동안은 교황자리가 빈자리로 남게 됐다.

로마 시민들은 선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좀더 지혜롭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감금하고 빵과 물만을 공급했다. 3년의 공백기를 겪고

새 교황이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10세는 이러한 교황선출 방식이 훌륭했음을 인정하고 1274년 그것을 제도화했다. 콘클라베가 공식화 된 시점이다.

교황선출 방식은 선거를 통해 권위를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1표만 더 언더라도 당선되는 '다수결의 원칙' 사회에 3분의 2 이상의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한 권위를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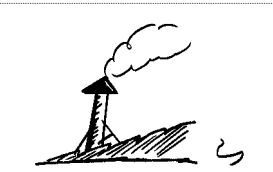
선출 방식은 흔히 추대라는 형식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감 선출때 이 방식이 사용됐다. 교육위원회리 구수회의를 통해 교육감을 호선했다.

로마 바티칸시티에서 열린 콘클라베에서 다섯 번 투표끝에 새 교황이 선출됐다. 아르헨티나의 지연과 함께 교황의 장기 공석사태를 불러왔다. 급기야 교황 클레멘스 4세가 선종한 1268년부터 3년 동안은 교황자리가 빈자리로 남게 됐다.

로마 시민들은 선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좀더 지혜롭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감금하고 빵과 물만을 공급했다. 3년의 공백기를 겪고

*/참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콘클라베



텔레마케터·편의점 등 알바생 휴식시간 보장해야

한편이라도 벌기 위해 남녀노소 직업전선으로 나서는 요즘, 일자리 정규직보다는 손쉽게 고용하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많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아르바이트 일 중에는 잠시라도 자리를 뜨기 어려운 직종이 있다. 물론 크고 작은 회사,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열세한 업종이나 업소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테면 전화를 손에서 놓기 어려운 텔레마케터, 자리를 비웠다가는 순식간에 빈자리가 되는 편의점, 대형 마트의 계산대 직원, 수많은 청소년이 드나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 학생들이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출행랑치는 PC방 관리 등.

우선 텔레마케터를 보자. 텔레마케터를 하는 4촌 동생이 있는데 업무 중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외부에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콜'

을 일시로 막아두고 팀장에게 보고를 한 뒤 화장실에 간다. 하지만 여성들의 특성상 생리라는 것도 있고, 식사시간도 제때 맞추기 어려워 매일 출근길에 빵을 사와 몇 초 동안 풀을 막아놓고 재빨리 먹는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이 온전할리 없다.

PC방도 그렇다. 화장실이 급해 다녀와 보니 학생들이 우르르 도망가거나, 계산대 현금을 털어가는 경우를 당했다며 아예 인터넷에 그런 청소년을 공개 수배하는 사례도 있었다.

화장실 갈 찜조차 내기 힘든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아예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는 게 다반사라고 한다.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휴식도 없는 노동은 각종 사고나 건강 악화와 직결된다.

회사 근로기준법까지 내세우지 않더라도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도 이런 부분이 소홀히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줘야 한다.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연 락 처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